

무너진 국·보물급 석탑 관리

석조문화재의 현주소

국·보물급 석탑들이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돌덩이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존과 학연구소와 공주대가 공동 조사한 '청량사지 5·7층 석탑 정밀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공주 청량사지 5·7층 석탑(속칭 남매탑, 보물 1284·1285호)은 육안으로도 기울어짐 현상이 관찰될 뿐 아니라 부재(部材) 파손, 표면박리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다보탑(국보20호), 석가탑(국보21호), 감은사터 서탑(국보112)이 0.6~1도 기울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훼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감은사터 동탑은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월정사 8각9층 석탑(국보48호)에서 균열이 확인되는 등 다른 석조문화재들은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조문화재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산성비·염분·새 배설물 등 주요손상 원인
“해체·보수하러다 되레 훼손할라” 딜레마
전문가 양성 시급… 정기점검 뒤따라야

손상 실태

국내 석조문화재는 국보 64기, 보물 442기와 시도지정문화재 637기가 있다. 이중 대다수가 석탑, 석불, 부도, 석등 등으로 불교 문화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조선 시대로 대부분 1000년 이상 야외에서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표면 훼손은 물론 강도도 많이 약해진 상태다. 청량사지 5층 석탑의 경우 상륜부는 파손 이탈과 균열 등으로 이미 풍화가 진행되고 있고 탑신부도 부재의 결실 및 이격(사이가 벌어짐)으로 불안정한 데다 강간 산화물 표출로 지대에서는 황화현상(표면이 검게 변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사지 7층 석탑도 북쪽 상대갑석의 미세균열과 층상균열이 관찰됐고 동남측 5층 탑신부의 부재 이격 및 옥개석 마모, 탑신석의 이격 등 다양한 물리적 풍화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두 석탑 옥개석 낙수면 등에는 선태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등 주변 수목과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터 동·서탑의 주된 손상원인은 산성비와 인근 해수의 염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성비와 바닷바람의 염분으로 인해 탑의 강도가 약해졌고 탑 기반부에 이끼

가 많이 끼고 석재 곳곳이 균열돼 전체적으로 탑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다보탑은 탑신 표면의 마모가 심하고 최근 3년 새 백화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가탑도 기반부 상층 내부에 큰 틈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보 48호 월정사 8각9층 석탑도 기반부의 부재 일부에 금이 갔고 탑신부에도 균열이 진행 중이다. 부재와 부재 사이도 어긋나 있는 상태다.

또한 부여 무량사 5층석탑(보물 185호)의 경우 석탑이 뒤틀림으로 기울어져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03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했던 양주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은 보수부분이 일부 탈락된 채 방치되고 있어 부실보수공사 의혹마저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보호기구 사용 여부 논란

석조문화재 보수·보존에 딜레마가 따르는 이유는 필개,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를 위해 탑 등을 해체하려다 오히려 탑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진형 연구원은 “1996년 감은사터 동탑을 해체 보수했지만 기반부 아래에 잡석을 부실하게 채워 기반부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1000년 이상 안정적으로 버티오던 석조물을 해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기단부 파손이심 및 벽각(사진 오른쪽 원안), 2층 옥개석의 부재결실과 표면요철(사진 왼쪽 원안) 등 당국의 관리소홀로 모습을 잃고 있는 공주 청량사지 5·7층 석탑.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적 보호기구의 사용이 석조문화재의 자연미를 훼손시킨다는 여론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국보)의 경우, 산성비 자동차 배기가스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2000년 유리 보호막을 설치했지만 석탑을 우리 안에 가두어 탑의 참 맛을 훼손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핀잔을 받은 것이 좋은 사례다.

또 문화재 보수·보존 명목으로 책정된 당국의 뼈대 예산과 보수할 전문인력 부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책은?

관계학자들은 △전문인력 확충 △상시 계측 시스템 설치 △정부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예산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전문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한 명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한 명도 없다.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 석조문화재 훼손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전문가와 광물학 암석학 전공자들의 유기적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암석의 성질과 특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보존 방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단 하부 등 변형된 부위와 탑 몸체의 변형 예상 지점에 센서를 구축하고 3차원 스캔자료를 통한 각 부재의 기울기 및 중심축 기동을 분석하는 상시계측 기기와 자동기상관측기를 설치해 풍향·풍속·습도 등을 관측해 다각적으로 국보급 석탑을 보존·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주대 이진희 교수는 “석조물을 보존하려면 자연풍화작용을 진정시키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산성비로 인한 2차 오염 제거, 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약품 처리와 부재 이격과 표면박리 등 기계적 풍화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간극이 큰 지점에 대한 접합 및 강화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보수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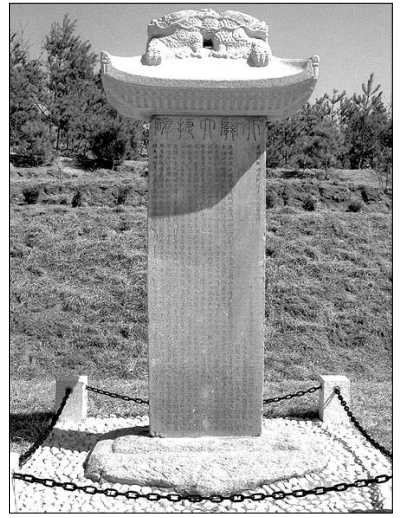
北, 북관대첩비 복원

지난해 3월 북한에게 인도한 북관대첩비(사진)가 원래 건립 장소였던 함경북도 김책시 임평리에 안전하게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가 지난 3월 23일 건립 당시의 받침돌 위에 비석을 올려놓은 복원된 모습의 북관대첩비의 사진과 동영상 7월 3일 공개했다.

이들 사진과 동영상은 최근 한일불교복지협회(회장 초산)와 통일부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진을 통해 본 북관대첩비는 임평리 주변 2만여㎡ 보호구역 안에 원래 받침돌을 원래 세웠던 주위에 작은 자갈들을 깔고 잔디를 심어 단장했다. 또 복원된 비석 옆에는 북한 국보유적



193호로 등록됐음을 알리는 표지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시 등을 새긴 안내석도 같이 세워져 있다. 노병철 기자

표지명에 담긴 고려 역사와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다시보는 역사 편지…’

“가부좌를 틀고 향을 사르고 손을 거두었는데,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듯이 편안하게 여기며 돌아가셨다… 불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앞에 나와 분향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불교에 뛰어나서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시오네.”

여진 정벌로 유명한 윤관 장군의 아들 윤연민(1095~1154)의 묘지명(61.3×26.6×1.8cm·사진) 내용 중 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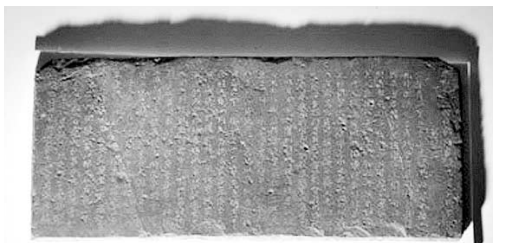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경우)은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에서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의 묘지’ 기획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공개되던 고려 묘지명의 실물들을 한데 모아 고려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질서,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묘지명(墓誌銘)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며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무덤 안에 넣은 기록물을 말한다. 비록 각각의 묘지명은 개인적인 통기로 만들어졌지만, 현대인들에게 당시의 문화와 역사, 삶과 생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불교와 도교, 유교,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의 내용을 담은 묘지명 70여 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의 내용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해동천자의 나라’는 독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황제국(皇帝國)을 자처한 고려 왕조의 정치적 특성을 알 수 있다. 2부 ‘가족과 여성’에서는 혼인과 거주지 실상 등 가족생활과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3부 ‘정신세계’에서는 ‘윤연민의 묘지명’ ‘황보안 처 김씨 묘지명’ 등 불교와 유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 다양한 사상과 신앙이 깃든 묘지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묘지명, 받침대에 있는 특이한 묘지명, 새로 발굴한 정인신 묘지명 등이 소개되며, 특히 이들 묘지명의 내용과 관련된 도자기나 공예품, 회화류, 문서 등도 함께 전시된다. 노병철 기자

중앙승가대, <초기불전> 발간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학인들이 발간한 <초기불전>(사진)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남부 수행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념처 수행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념처경(마하사피파라나)>과 열처경(사피파라나수타)에 대한 번역은 물론 사념처 관찰(신·수·심·법) 등의 내용을 해설과 주석을 달아 설명해 놓고 있다.

* 기사남처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특이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장동불상제작전문 상인불교전시관 서울

성화불교미술원(공정)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장빌딩 1층

화제의 신간 21세기 다시보는 풍수지리

智山 風水地理要訣

【제1권】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기 형기 권공 양택 산사주학 비법
 신개념의 풍수가 한눈에 속속!

이것이 바로 기둥이요 뿌리라!!!
 신 풍수지리 완결편 지침서 길잡이!!!

- 주역팔괘 방위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기학
- 좌향과 해운에 따라 후손에게 미치는 산사주 비법
- 해운과 좌향 변화에 따라 변하는 현공학
- 지형지세와 오행 변화에 따른 형기학
- 간산(산소 감정) 요령
- 각종 택일
- 장의절차와 상례 축문

金 根 夏 지음 / 신국판/양장본 / 736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x6배판/이선중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환,전효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한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제를 쓰고 추석을 하고 팔려가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자 / 신국판 / 양장본 / 값 30,000원

승림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사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기밀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이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승림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30,000원